

2023.04.02.(주일) 마태복음5:8 팔복산의 시력 김양재 목사님

7.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우리는 밑동 잘린 나무에 너무 영양을 주려고 하는데.. 의사도 필요하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사랑이기에 죽을 것 같아도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시력이 이렇게 참 천차만별입니다. 팔복산의 시력이 영적 시력인데 영적 시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수 있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력이 몇이에요? 저는 안구 건조증은 있지만 생각보다 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경 안 쓰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시력이 유지 되냐고요? 그 분노조절장애를 ‘분조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번 주 새벽 기도 들어보니까 ‘분조장’의 처방은 어떤 상담학 교수가 말하기를 울어야 한대요. 많이 울수록 분노가 사그러진다고 하네요. 팔복산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제 공황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눈은 지금도 이렇게 뿌열 때가 많지만은 저도 이렇게 울어서 시력이 유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조장’들은 눈물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조장 여러분들!

오늘은 <팔복산의 시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바로 여섯 번째의 <청결의 복>입니다. God[갓]인지 Gold[골드]인지 멀리서 보면 흐릿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봐야 알잖아요.

1. 팔복산의 시력은 거짓된 내 마음을 보는 시력입니다.

이것은 다초점 시력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카멜레온이라고 해요. 카멜레온은 그 색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도 다양한데 한 눈으로는 높은 곳에 먹이를 보고, 또 한 눈으로는 물에 뜬 곤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죠. 근데 카멜레온이 이렇게 좋은 생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이것저것을 보라고 따로 두 눈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한 물체를 정확한 시력으로 서로 보완해서 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일원론이에요. 그런데 한눈으로는 팔복산(God, 갓)을 사모하고, 한눈으로는 기복산(Gold, 골드)를 사모하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청결의 반대는 바로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우주의 별 하나 보기에 부족한 게 우리 시력인데요. 요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시리우스라고 해요. 지구에서 약 8.6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빛이 9년 가까이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니까 km로 계산을 하면 약 70조 5336억 킬로미터라고 해요. 가늠이 안 되시죠? 예 그런데 이 별 하나를 보려고 해도 이런데 하물며 그 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지금 맨눈으로는 태양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시력이 태양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만일 팔복산의 시력이 이 눈에 좋은 시력이라고 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아니고 의외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 커피숍에 취직해서 상사에게 말하는 자신의 결과 속이 달랐다는 카멜레온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이제 커피숍에 취직한지 3주가 되었대요. 예전에 가게 사장을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건 처음인데 나이가 많아 이제 취직하기도 힘드니까 너무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막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테이블도 열심히 닦고~~ 그런데 어떤 날 나이가 한참 어린 상사가 와서 “아무개님, 제가 할 말은 해야겠어요. 왜 음료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테이블만 이렇게 30분이나 닦으면서 빈둥빈둥 대시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이는 말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 말씀이 딱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 두꺼비같이 생긴 종업원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사장일 때는 너 같은 거 뽑지도 않았어!!’하며 ‘지금 내가 테이블을 얼마나 많이 빨리 닦고 청소하는지 CCTV를 돌려서 따져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네, 죄송합니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금세 종업원을 미워하고, ‘내가 힘이 생기면 저 상사 놈을 힘으로 눌러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나눔을 들었어요.

자, 그 집사님이 겉으로는 금세 “네, 죄송합니다.” 했죠? 그렇지만 **마음은 그 짧은 시간에 미움, 판단, 정죄, 옳고 그름, 무시, 비하, 비교, 교만... 그냥..** 그래서 이것이 목장에서 목자에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청결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청결한 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아무리 쪼개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쪼개도 물이에요. 근데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의 마음 맞습니다.** 아무리 (말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 속이 다른 거예요. 카멜레온이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다초점의 생활을 죄의식도 없이 합니다. “내가 죄송했다고 그러면 다잖아!” 그래요. 뭐 그것도 다 이기는 하죠.

주님 당시,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양면적 마음의 상태를 지녔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했어요, 카멜레온처럼.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불의

와 결탁하게 되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고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더러움을 결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매끈하고, 깨끗한데 목욕탕에 왜 가겠어요? 이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출발은 바로 내 마음이 더러운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죽음 넘어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밑동 잘린 나무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그냥 칠을 하고~ 분을 칠하고~ 수액을 주면서~~ 오래 살겠다고. 다 똑같은데.. 거기서 거긴데.. 그죠? 오늘도 보니까 잠깐 보는데 그런 게 뜨더라고. ‘그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으니 튀김이다. 튀김 먹으면은 치매가 제일 빨리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이거 하면 이거 안 먹고~ 저거 하면 이거 안 먹고~~ 밑동 잘린 나무를 위해서 너무너무 투자를 하시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밑동이 잘리고 그을린 더러운 나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력이 좋아지는 시작이에요.

■ 적용 질문이에요.

Q 여러분의 눈은 다초점 시력으로 카멜레온처럼 기복산, 팔복산을 다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슬프시죠?)

Q 바리새인처럼 앞에서는 웃고, 속으로는 정죄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 바리새인처럼 입바른 소리만 했던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부목자님.

한 부목자님이 저는 최고의 부목자로 불리고 싶은데 목자가 되지 못하는 부목자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자기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들교회에 처음 와서 목장을 나갈 때, 그때 저희가 <알코올중독 목장>이었는데요. 서로 치열하게 나눔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인본적이셨던 부목자님과 권찰님이 언쟁을 하는데 저는 부목자님을 위한답시고 바리새인처럼 입바른 소리만 하면서 “권찰님은 너무 말이 많고, 예전에 여자 집사님들은 말씀도 잘 안 하셨는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고, 각자들 자기 죄만 보고 가면 되지! 저 부부에게 병원 가라, 마라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목장 보고서를 그주 담임 목사님께서 전부 다 읽어주시며 실명은 안 나왔지만 저의 나눔을 지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분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를 바둑바둑 갈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입바른 소리만 하는 본질은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저를 이렇게 이를 바둑바둑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내 마음을 인정하는 나눔을 하셨잖아요?

2. 팔복산의 시력은 마음이 청결한 시력입니다.(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레브]예요. (요즘은 한 단어니까 원어를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외우실 것 같아요.)

‘마음’의 뜻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계속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서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구석구석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죽어 있고, 멈춰 있는 심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심장이 뛰어 혈액이 온몸에 전달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매일 반복되고 지속되는 이 작업을 통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다 흘러 떠내려가고,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청결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노폐물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만 살아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르게 뛰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몸 구석구석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심장’이라면, ‘청결’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상태’를 말해요. 지난주 피겨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차준환, 이해인 선수가 은메달을 땀어요. 그들이 그 연기를 끝내면 중계석에서 “클린 (Clean) 입니다!!!” 이래요.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봤네요. 그거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전수, 랜딩, 엷지 등 아주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클린입니다!” 하는데 주님이 제 인생도 끝났을 때- 이 여정이 끝났을 때- “클린이다!!”라고 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순도 100%의 청결은 인간은 이를 수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유한한 이 밑동 잘린 나무인 존재가 주님의 무한한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나먼 거리.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죄가... 아무리 가도 몇 억 년을 지나도 막혀있는 죄가 있어요. 그 장벽 때문에 더더욱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 전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자가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우리가 하늘이 어두우면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시력이 좋고, 하늘이 맑아도, 별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별빛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광년 떨어진 거리를 뚫고 우리 눈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공허히 여기고~ 온유하고~~ 그딴 거 하나도 못 해요. 별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결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내가 노력해서- 수양을 쌓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긍휼이 동정이 아니라고 했듯이, 팔복은 내가 노력해야 얻는 복-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팔복은 말 그대로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지금 산에 올라온 너희가 지금 누리는 복이라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청결의 복'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가시니까. 사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나는! 나는! 나는! 내 모습만 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죄가 보이니까 나에게로만 향하던 내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물로 씻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라고 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저는 "나는~ 나는~ 나는 잘하고~~ 나는~ 나는~"에서 제 악을 보고, 제 시선이 말씀으로 향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청결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청결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36:26-27)'

그러니까 ★내 더러움을 알아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새 마음 = 청결한 마음 =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 마음 =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산에서 받아 누리는 여섯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처럼 계속 박동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장이 착해서 잘나서 지금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힘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산소가 공급되고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흘러가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든 없든 계속 심장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서 계속 노폐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숨은 부끄러움들이 계속 목장에서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버려진- 흘러 떠나서 다 버려진- 이 빈속에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 '청결'이에요. 우리들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청결 시스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미움과 탐심, 그 악한 생각들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움과 시기과 질투가 흘러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고인 물로

그대로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미움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미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으로도 오고, 우울증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 고여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가 그냥 여기 썩은 물로- 고인 물로-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 게 청결이 아니예요! 눈 뜨면 또 생겨나고, 눈 뜨면 또 생겨나는데... 눈 뜨면 내 옆에 식구들만 쳐다보면 “다 쳐....” 그러고 싶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날마다 미운 마음이 생겨나지마는 그거를 심장이 착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예요. 악하다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예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고백하고, 또 큐티하면서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눔과 묵상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도 잘 돌아가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금세는 안 보여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은 ... 이 죄악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놓으니까- 버린 것만큼 채워놓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소할 때 뭐부터 하나요? 창문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창문 안 열고 빗자루만 휘두르면은 온 집안이 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입부터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지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의 [래브]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장’과 ‘집’이란, 어떤 집예요? 배우고 연구하고, 뭘 배우나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거기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렇게 잘 닦고 비비고 문지르며 고백 되어지고 흘러간 죄의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이게 ‘청결’이라고요. ★날마다! 여전히!가 중요한 청결의 비결이에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비비고 문지르고 닦고 [디아트리보] 기억나시나요? 사도 행전에서 [디아트리보] 기억나세요? (멀리~멀리~ ^^) 그냥 한마디로 ★죄악을 쏘아내고 흘려보내며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놓는 것이 청결이라. 청결. 우리가 청결 시스템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청결하지 못해. 나는 죄졌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대하세요. 우대하세요. ‘난 죄 많아. 청결하지 못해.’ 이런 사람을 우대해요.

■ 적용 질문드릴게요.

Q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흘러가지 않고-고백 되지않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채워놓으며 큐티하십니까? (고백하면은 채워놓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큐티한다~ 아니 혼자 큐티하지 뭐 목장은 왜 가?’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Q 육적으로 나는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청소 얼마나 해요? 제가 이 청소가 전공이잖아요. 청소해본 결과, 세상에 먼지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루도 안 하면 뽀얗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한 달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장에서 내 부족과 내 이런 약점을 나누려고 목장에 가는 거잖아요.

■ 항상 목장에서 내 부족과 약점을 나누며 청결해지시는 집사님들의 나눔(면접, 호칭)
한 분이 자기가 서울시 보람일자리 관리자를 채용하는 면접시험에서 (이제 다른 건 다 했어요.) 면접관이 각자의 단점이 뭐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단점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내 단점은 급한 거라고, 내가 요즘은 트레킹과 독서를 하면서 많이 완화되었는데 그래서 약재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면접관이 “그게 무슨 약인데요?” 완전 그거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요?” 그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떨어졌는데 98명 가운데 39위를 했는데 그 약재료만 뺀어도 됐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미션수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알아듣지도 못할 약재료 얘기는 거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했으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그러나 저는 이런 서울시 일자리 같은데 정말 우리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너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종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런 부족을 얘기했지만, 또 한 분은 “나는 현모양처가 예수님 믿기 전에 꿈이었었는데 그런데 글썄 지금 제가 부목자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한참 얘기하는데 나한테 ‘부목자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부목자’라고 안 그러고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확 상하면서 ‘나 부목자인데!’ 아주 미운 거예요. 너무 인정받는 게 그거였나 봐요. 나는 ‘맹추’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없어서 나이 먹어서도 엄마가 ‘맹추’라고 하면 너무 싫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목장에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그까짓 거 그 부목자 가지고~” 그런 사람은 더 나빠요!! “아유~ 그까짓 거 목자 가지고~” 해보시고 말씀하시던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존경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그까짓 거 내가 왕년에 그거 다 해봤다고~!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 이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렇게 나눔이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팔복산의 시력>이 거짓된 내 마음을 보는 거고, 이제 청결한 마음, 참으로 그 마음이 ‘심장’이고, 정말 심장이 중요하고. 노폐물을 날마다 이렇게 버리고 거기다 말씀

을 채워놓는 거라 그랬어요.

3. 팔복산의 시력은 하나님을 보는 시력입니다.

8절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아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3인칭 남성 복수 주격 인칭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 바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重生)’ 또 ‘다시 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거듭날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같이 동행하지마는 진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진짜 뵈올 날이 오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진짜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맨날 헌금 기도 때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냥 ‘내 사랑하는 주님’만 불러도 마음이 이렇게 울컥한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42장 5절의 결론이 **욥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청결하게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온몸이 병들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까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고 그가 욥인 줄 아무도 이제 몰라볼 정도가 되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동방에서 그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휘몰아치는 고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으면 시력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 시력이 생긴 거예요.

이 **고백 후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본 후 주님께 따집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의롭고, 예배 잘 드렸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줬나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을 보면서 욥이 이렇게 따지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6절에 “욥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이 해석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석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0% 옳으셔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은 선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보는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보이는 것의 메이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의 매입입니다. 주께 받은 은사도 비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내가 본 주님이 크다. 내 영적 시력이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탁월하다” 이런 기복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보고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볼 뿐인데!!! 그래서 이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도 몰라도 주님을 만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들은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잖아요. 음악을 아무리 콩나물 대가리를-악보를- 많이 보면 뭐 해요. 베토벤, 브람스..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이 들리면 그냥 좋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 몰라도 그렇잖아요? 이 사랑을 주셨기에 사실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보이는 것에 다 매여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적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내가 회개하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옳도다” 하며 자꾸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청결해져가지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눈을 25,000번을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깨끗해져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 간에 청결해져서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수록 내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수록 청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옳도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더욱 청결해져가지고 더욱더 옳도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공활을 원하시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대답을 왜 안 해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5.18 그 당시 나라가 이렇게 위험했다고 쳐도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역사에 맡기고요. 그 당시 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고통을 받고 상처받았다면 이건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사의 적용

을 지난주에 전도사님 아드님께서 하더라고요. 저도 큐티는 제가 하는데 적용은 늘 믿음 없는 제 남편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건 아니건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니까 잘, 잘못을 떠나서 다들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100 데나리온 중에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50 못 받은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조건이 따르면 안 돼요. 믿는 우리는 조상의 죄도 다 모두가 “제 탓입니다.” 해야 해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진짜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고난이든 아니든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믿음에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알 때는 코끼리 뒷다리만 보고 코끼리를 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엔 등을 보고 또 “아! 내가 다리하고, 등을 보았네! 이게 코끼리야!” 그런데 전체를 보고 “아! 코끼리구나!” 할 때는 이게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시야가 달라졌어요.

근데 올해 1월달에 등록을 하신 우리 새신자님께서 뭐라고 나눔을 했냐 하면, “목장이 방학하면 스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설교가 어렵던지, 그분에게 아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2년 6개월이나 성경을 잘 가르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 믿음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빈자리가 없도록 순도 100%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있는 자는 더 부해진다고 믿음이 있는 에베소교회에 보내신 이 바울의 편지는 저는 우리들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다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해석들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더해지면 이 나라도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치유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사역자가 아닌데도 이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살리고 있는 법원의 이혼 담당 공무원인 부목자님의 나눔이에요.

■ **최선을 다해 가정을 살리고 있는 법원 이혼 담당 공무원인 부목자님의 나눔**
 근데 이분들이 면담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재판에 거의 80~90% 정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집사님은 청년부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별 고난도 없어요. 소리없이 가정을 살리고 있는데 지난 3월에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교회를 5명 소개했다는 거예요.

한 분은 아내분과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 소송 중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가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목장에서 들어놓은 말이 있으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받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좌절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우리들교회를 딱 말씀드렸는데 탐방을 가보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장로님께 이 남자분을 연결해 드렸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로님은 그분의 장례식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아니, 우리들교회 목사님과 초원님들은 이렇게 한 영혼을 연결만 해드리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살려내시는구나!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남편의 외도가 확실한데도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보통 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반소장을 제기하고 같이 열심히 싸우시는데.. 자기가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지켜내고 싶다고 하셔서 또 우리들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큐티인도 주문하고, 목사님 설교도 찾아서 보시고, 그냥 이 집사님하고 얘기한 자체가 위로가 되어서 목장에도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부부는 목사님 부부셨는데 이혼을 하러 오셨고, 너무 단기간에 이혼하러 오셔서.. 목사님이니까 우리들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권해드렸는데 딱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말씀으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원래 우리들교회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고 있었고, 궁금해하던 차인데! 이 조사관께서 우리들교회에 말씀을 드리니 많이 놀라셨고 집에 오셔서 3일간 평평 우셨다는 거예요. 거기도 주님의 위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목사님께서 사모님 등록까지 도와주셔서 지금 목장에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님 부부가 이혼하시러 오셔서 좀 사랑보다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교회라도 가서 양육 좀 받으시라고 막 씨 뿌리듯이 착! 던진 건데.. 이것도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고..

이러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저도 놀라는 중에 저희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제가 많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교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그런데 우리들교회 분들은 데리고만 오면 정말 자기 일처럼 척척 연결해 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이혼 말리는 것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프로를 봤냐 하면, 한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9년 동안에 1600~ 1700건 이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혼을 시켜주는 게 너무 그분들한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인권이 이렇게 왕 노릇하는데 인구가 절벽인데 이혼을 9년 만에 한 사람이 1600명, 1700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팔복산에 올라가서 해야될 일이 많은지** 아시겠죠. (이 공무원 집사님처럼) **각자 처소에서! 아셨습니까? 이것이 팔복산의 시력이에요.**

“당신이 옳다”를 외치니까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이 재밌고, 큐티가 재미있고, 그러니까 우리들교회가 온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금 다들 성경을 부여잡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하셨잖아요. **“당신이 옳도다” 하니까 성경이 더 재미있어지고 이게 청결한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영적 시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10, 20, 30, 40 지금. 이 성경이 우리 말(얘기) 아니에요? 우리들교회 얘기 아니에요?

■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권찰님의 나눔

또한 권찰님이 자기가 30대 때 임신 중 사산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너무 위중해서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피를 나눠 주려고 순번을 정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휴함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이 저의 출애굽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하면서 지금 큐티하면서 공동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어떤 한 분을 위해 하루종일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떠올랐는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너무 세상이 돌을 던지는데... 참 구원받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이 땅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그 값을 너무도 톡톡히 받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정말 돌로 안쳐야겠다’는 생각이 울컥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모님은 오직 이혼 안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셔서 그 집안에 처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식구들도 모두 구원받아야 할 공휴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되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영적 시력을 갖추어서 이 고난주간에 팔복산의 청결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 적용 질문이에요.

Q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Q **지금 현재 해석이 안되는 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이거는 뭐예요?**

오늘 청결이 탄 게 아니에요. **내 죄 보고 말씀 채우는 거.** 바울 사도가 믿음이 있는

에베소교회에게 더욱더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들교회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우리들교회 얘기네!’ 그러면서 너무 감동하세요? ‘왜 목사님 저 혼자서 감동하나?’ 이러세요? 이게 ‘진짜 우리들교회 얘기구나!’ 감동하세요? (예!)

말씀 맺어요.

<팔복산의 시력>은 거짓된 내 마음을 보는 시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카멜레온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기복산, 팔복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바쁘시겠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냥. 그건 정말 눈도 좋아~ 그죠?

마음이 청결한 시력이에요. 심장 박동을 해야 되고, 노폐물을 다 버리고 거기다 말씀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은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지만은 우리 죽음 너머의 그 하나님을 보는 시력을 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거짓된 내 마음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복산, 팔복산에서 이 다초점 시력이 된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여기서도 잘 살고...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지 않도록. 마음이 청결하여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 집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귀로 듣다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사건이 해석되고 사랑으로 표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옳소이다”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이 깨달아지고 청결해지는 비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옳소이다”는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정말 우리 믿음의 말입니다. 이런 청결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적용이 - 이 사소한 한 사람의 적용이- 나라를 치유하는 그런 집집마다의 적용이 될 줄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회사에서, 집에서 “당신이 옳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짓된 내 마음을 보는 시력이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제 저에게 있는데... 누구에게도 “당신이 옳아요. 제가 잘못했지요.” 하지만 속에서 드는 이런 다초점 시력의 카멜레온 같은 마음이 날마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또 주님이 필요하고 심장이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청결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저도 팔복산의 정상에 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에게 이렇게 다초점인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늘 말씀으로 심장이 잘 나서 심장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거.. 하면은 저절로 말씀

안에서 내 죄가 보이고, 이것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가게 되다보니 남는 것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아는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으로 내 자신을 보며, 내 사건이 해석이 되고, 거기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팔복산의 청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해석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텐데..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의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건을 사랑으로 봉합하는 위정자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 이것은 해도 안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 절벽은 이제 돼도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혼부터 말려야 하고! 참으로 불신 결혼하지 않아야 하며! 아이는 낳아야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적용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팔복산의 영적 시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복산의 시력을 가집시다!”

1. 팔복산의 시력은 거짓된 내 마음을 보는 시력입니다.

- 커피숍에 취직해서 상사에게 말하는 자신의 겉과 속이 달랐다는 카멜레온 집사님
- Q. 여러분의 눈은 다초점 시력으로 카멜레온처럼 기복산, 팔복산을 다 보고 있습니까?
- Q. 바리새인처럼 앞에서는 웃고, 속으로는 정죄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 바리새인처럼 입바른 소리만 했던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부목자님.

2. 팔복산의 시력은 마음이 청결한 시력입니다.(마음이 청결한 자)

- Q.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흘러가지 않고-고백 되지않고- 또 아리를 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채워 놓으며 큐티하십니까?
- Q. 육적으로 나는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 항상 목장에서 내 부족과 약점을 나누며 청결해지시는 집사님들의 나눔(면접, 호칭)

3. 팔복산의 시력은 하나님을 보는 시력입니다.

- 최선을 다해 가정을 살리고 있는 법원 이혼 담당 공무원인 부목자님의 나눔
-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권찰님의 나눔
- Q.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Q. 지금 현재 해석이 안되는 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뭐예요?

“팔복산의 시력을 가집시다!”